

바리데기 Baridegi 2025

김하린

나는 오래도록 '되돌아가기'를 꿈꾸는 마음, 즉 잃어버린 균형과 안정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원초적 충동에 대해 생각해왔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여성의 몸을 둘러싼 감정들은 나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돌아갈 수 있는 '이전의 상태'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복원을 계속 갈망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바리데기 서사는 이러한 질문을 다시 비춘다. 바리데기는 버려진 딸이자,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해 죽은 세계를 건너는 존재다. 그 여정은 균열과 고통의 봉합이 아니라, 오히려 파열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의 생성이다. 나는 이 신화를 단일한 구조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끊어짐·중첩·이행·반복으로 이뤄진 비선형적 장치로 바라본다. 버려짐은 상처이지만, 동시에 넘어서기를 강제하는 계기이며, 그 틈에서 전혀 다른 생명의 규칙들이 솟아오른다.

나는 *바리데기 Baridegi 2025*에 사용되는 천, 붉은 천, 해체된 한복의 조각들로 바로 이 '파열된 구조'를 물질로 번역한다. 천은 잘리거나 묶이고, 당겨지며, 다른 천과 겹쳐지면서 이전의 쓰임새를 완전히 상실한다. 하지만 그 상실은 곧 다른 질서의 가능성을 품는다. 그 과정은 마치 바리데기가 저승에서 고향을 향하는 이질적인 세계들을 통과하며 스스로를 다시 구성해내는 과정과 닮아 있다.

나는 이 변형의 과정을 하나의 치유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말하는 '원상 복귀'가 아니다. 치유란 더 이상 안정된 형태로 회귀하는 운동이 아니라, 상처의 균열면을 따라 미끄러지며 또 다른 무엇으로 도약하는 운동, 즉 낮은 질서로 이동하는 감각이다. 이것이 바리데기의 여정과 내가 체험한 모성의 시간이 서로를 반사시키는 이유다.

모성은 완전한 희생이나 신화적 헌신으로 이상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때로는 부서지고 뒤틀리고 견딜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의 장이다. 나는 그 복잡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혼재된 감정들이 새로운 생명의 감각을 열어젖히는 순간을 바라본다.

나의 작업은 찢어진 조각이 다른 조각과 결합하며, 상실이 다른 생성을 초대하고, 버려짐이 다른 관계의 기원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간다. 파열은 단절이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

나는 이 조각들과 함께, 이전의 나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새롭게 생성되는 '다른 질서' 속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그 이동의 흔적이 화면과 설치, 붉은 천의 집적을 통해 관객 앞에 펼쳐지기를 바란다.

한국미술관 기획전 <우리에겐 은유가 절실하다>

2025.09.26.- 11.16

전시 출품작 '바리데기 Baridegi 2025' 작가노트